

사회

# 오현섭發 ‘비리 뇌관’ 터지나

## 도피 60일만에 자수... 수사 ‘불똥’ 여수시 사업 전반 번질까 촉각

### 중국 도피한 측근도 곧 입국... 파장 예고

오현섭(60) 전 여수시장이 도피 60여일 만인 18일 경찰에 자수함에 따라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오 전 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는 물론, 여수지역 안팎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 의혹도 받고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 6월 구속된 여수시 전 국장 김모(여·59)씨의 뇌물수수 사건과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여수시 도심개발사업단장으로 재직하

던 2007~2009년 야간경관조명업체인 나이토피아로부터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김씨가 받은 돈 가운데 1억 6000만원은 김씨가 갖고 있으면서 오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운동원 활동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나머지 1억원은 오 전 시장의 또 다른 측근인 주모(67·중국 도피)씨에게 건네져 지난해 말 여수시의회의원 10여명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주씨는 오는 20일께 입국한 뒤 경찰에 자진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연루 인사의 사법처리에 따른 재선거 등 거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이 오 전 시장과 주씨를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여수시의원 연루 의혹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 4기 여수시의원 25명 중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12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과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의회 관계자들은 물론, 시청 안팎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책임 시절 인공해수욕장사업(84억원), 이순신광장사업(460억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131억원)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오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여수시정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자칫 시 전체가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과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의회 관계자들은 물론, 시청 안팎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광주경찰, 5대범죄 검거율 2년 연속 최하위권

## 67.6%에 그쳐

광주경찰이 2008년에 이어 지난해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발생 대비 검거율에서 전국 16개 시도 지방경찰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경찰의 5대 범죄 검거율은 67.6%(발생건수 2만4329건·검거건수 1만6452건)에 그쳤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지방경찰청 중 15위로, 전국 평균 검거율(82.2%)보다 14.6%p나 낮은 수치다.

전남경찰은 82.9%(발생 2만216건·검거 1만6753건)로 6위를 차지했다. 항목별로는 강간이 92.6%로 가장 높

았고, ▲살인 90.6% ▲폭력 85.2% ▲강도 76.3% ▲절도 50.2% 등이었다.

2008년 광주경찰의 5대 범죄 검거율은 62.3%로, 전국 평균 검거율(74.8%)보다 12.5%p 가량 낮아 전국 꼴찌였다. 전남경찰은 검거율 69.2%(발생 2만1145건·검거 1만4640건)로 11위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경찰은 2008년 대비 지난해 범죄발생 대비 검거건수가 5.3%p 증가하는데 그쳐 전국 평균 증가율(7.4%p)를 크게 밑돌았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매월 강·절도 등 주요 범죄 발생건수를 분석, 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고 이병철 회장 손자 이재찬씨 투신 자살

18일 오전 7시2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D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손자인 이재찬(46)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이씨는 고 이 회장의 차남인 고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아들이자 이경희 삼성그룹 회장의 조카다. 삼성에서 '비운의 황태자'로 불렸던 이창희 전 회장은 1991년 작고했다.

경비원 신모(61)씨는 경찰에서 “현관 앞 주차장 주변에서 ‘뱀’ 하는 소리가 들려 그쪽으로 가보니 흰색 면티를 입은 남자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비원 등의 진술로 미뤄 이씨가 투신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씨의 시신은 순천향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

/연합뉴스

# 교수 ‘뒷돈 채용’ 수사

## 광주지검, 전남 모 대학 돈 거래 정황 포착

지난 5월 광주의 한 대학 시간강사가 ‘교수 채용을 대가로 돈을 요구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데 이어 검찰이 전남 모 대학의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실제 돈이 오갔는지와 학교 측이 돈을 요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상훈)는 18일 ‘교수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을 학교 측에 건넸다’는 전남 모 대학 전 교수 A씨의 진정서를 토대로 교수 채용과정에서의 ‘뒷돈’ 거래 의혹을 파악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학교 측이 지난 1996년 채용 당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요구해 돈을 건넸는데,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실제 돈이 오갔는지와 학교 측이 돈을 요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씨 등이 대학 교수 출신 3명은 “채용 당시 발전기금 명목으로 학교 측에 전달한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최근 학교 측에 발송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A씨 등이 해임에 불만을 품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광주 시내버스 2대 가스누출 의심

## 정밀검사 실시

광주지역 천연가스(CNG) 시내버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결과 2대의 연료통 연결부위에서 가스가 감지돼 정밀검사가 실시된다.

18일 광주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천연가스 시내버스에 대한 일제 안전 점검 결과, 한 운수업체 시내버스 2대의 연료통 연결부위에서 가스가 감지됐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시내버스 2대의 연료통과 엔진부를 연결하는 금속배관에서 가스가 감지됐다”며 “19일 정밀안전 점검을 해 가스 감지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가스안전공사는 오는 20일까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925대에 대한 1차 안전 점검을 하고, 이 기간에 점검하지 못했거나 정밀안전 점검이 요구되는 시내버스는 다음주에 2차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서울 천연가스 시내버스 폭발로 시내버스 이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조사를 하게 됐으며 문제가 된 2대의 버스 급속배관은 곧 교체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고흥 영남면 선착장서

## 승합차 추락 50대 숨져

18일 정오께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양화 선착장에서 정모(57)씨가 몰던 카니발 승합차가 바다로 추락, 운전자 정씨가 숨졌다.

지인들과 낚시를 하러온 정씨는 승합차를 이용해 짐을 나르던 중 추락된 일행의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바다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주경기자 giju@



### 침수주택 옷·가재도구 말리기

지난 16~17일 185mm의 국지성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곡성군 고달면 뇌연 마을에서 18일 주민들이 물에 잠긴 가재도구를 깨끗이 닦고 젖은 옷을 말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도망자 오현섭’ 60일간의 행적

## 화순·부산·강원서 은신 측근 자수에 출두 결심

오현섭(60) 전 여수시장이 18일 자수함에 따라 도피행각을 벌인 60일간의 행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 전 시장은 도피 직후 화순과 강원도 등을 오가며 경찰의 수사망을 감쪽같이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 전 시장은 여수시 전 국장인 김모씨가 지난 6월 15일 구속되고 사흘 뒤인 18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돌연 모습을 감췄다.

그는 시장 신분이던 6월 21일 예정이었던 휴가를 3일간 낸 이후 퇴임식마저 불참했으며, 측근들과도 연락을 끊었다. 이후 60일간의 도피 행각은 경찰은 물론, 측근들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비밀리에 지인들이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오 전 시장은 종교인인 김모(59·구속)씨의 도움을 받아 15일 가랑 화순의 산속에서 은신했으며 부산과 강원도 등으로 은신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달 9일에는 강릉터미널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버스표를 사는 모습이 터미널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의 도피를 도운 김씨와 한 의사 이모(57)씨가 경찰에 구속

되기도 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전격적으로 자수한 데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는 데다 중국에서 도피 중인 측근 주모(67)씨의 자수 결심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자수 이틀 전인 지난 16일 경찰에 편지를 보내 이날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4용지 8장 분량으로 장문의 자필 편지에는 자수의사와 일 시뿐 아니라 도피 생활을 하면서 느낀 심정과 도피 이유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 전 시장은 경찰에 보낸 편지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며 “판단 잘못으로 오욕과 명예를 지게 됐다”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또 자신이 광주시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주식 정보를 입수해 2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구속되던 당시를 떠올리며 “광주시장이 보는 앞에서 체포된 적이 있다. 소름이 끼쳤고 무서웠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잠적을 결심했다”고 도피행각에 나선 심경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결별 요구 내연녀 협박

### 돈 뺏고 성폭행 30대 영장

광주북부경찰은 18일 결별을 요구한 내연녀를 협박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박모(34)씨에 대해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6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로 A(여·35)씨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최근 결별을 선언한 A씨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 세 차례에 걸쳐 370만원의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 GOLFZON

광주 최고사설 스크린골프장

자이언트골프존